

북한 영화 속 ‘핵’의 콘텍스트: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분석*

한승호** · 고경민***

차 례

1. 서론
2.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종자와 영화 속 핵의 의미
 - 2.1.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종자
 - 2.2.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속 핵의 의미
3.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콘텍스트와 함의
 - 3.1. 타도 제국주의 동맹 담론의 재생산
 - 3.2. 콘텍스트의 이데올로기화
 - 3.3.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함의
4. 결론

* 이 논문은 2013년 8월 23~24일 「21세기 국제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KAIS 부산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그리고 이 논문은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지원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제번호: NRF 2010-002007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통일준비위원회 기획연구부 사회문화분과전문관, 제1저자

*** 제주대학교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교신저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통하여 북한이 인식하는 핵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는 2009년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2호>와 제2차 지하 핵 실험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북미간의 대결국면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북한은 영화를 선전선동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창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 연이어 제작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핵 정책과 핵의 의미 등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려는 의지를 엿보인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통하여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이고, 북한에 있어서 핵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김정일, 조선예술영화, 북핵, 미사일, 내가 본 나라, 광명성

1. 서론

1988년 북한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제작했고 5년이 지난 후 그 후속 편을 준비했다. 그런데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 출연했던 주요 배우들의 사망으로 후속 편 제작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후속편 제작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와 4, 5부의 제작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맡았다.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후속편인 2, 3부는 2009년 7월 27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¹⁾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가 제작·방영된 지 9개월 만에 북한 당국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 5부를 신속하게 제작하여 방영하였다.²⁾ 북한이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후속편을 빠른 속도로 제작·방영하는 것은 본 영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³⁾

2009년과 2010년 북한 당국이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후속편을 연이어 빠르게 제작한 것은 2009년 북한이 정책적으로 실시한 ‘150일 전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본 영화의 작가는 17일 만에 각본을 완성하였고 촬영은 27일 동안에 마무리하였다.⁴⁾ 2009년 북한이 속도전을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단기간 내에 제작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는 모범의 대상이 될 만한 표본인 것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2009년 ‘150일 전투’ 기간에 제작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에 대해 속도전을 당 정책에 맞게 성실히 수행한 선군시대의 본보기이자 모범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⁵⁾

<광명성 2호> 발사를 종자로 제작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는 2000년 이후 북한이 제시한 군사강국 위업 달성과 결부되어 있다.⁶⁾ 이는 동 영화를 통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핵문제를 고찰할

1) 『조선중앙통신』, 2009년 7월 27일자.

2)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3일자.

3) 『조선신보』, 2009년 9월 5일자.

4) 『조선신보』, 2009년 9월 5일자.

5) 한승호, 「북한 과학기술현대화(CNC)의 의미에 관한 연구」, 『북한과학기술연구』 8집,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10, 119~132쪽.

6) “우리에게는 지난 시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기 발사와 지하핵실험장면을 실감있게 보여준 예술영화<내가 본 나라>(영속편)을 비롯한 여러 예술영화들에서 최첨단수자식기술을 도입하여 높은 경지에 이른 명화면들을 창조하여 우리 영화예술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준 좋은 경험이었다. 문제는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기술자들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시킨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당에 대한 높은 충정심을 지니고 부단히 실력을 높여 명작영화창조에 필요한 가치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내는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북한의 예술영화 중에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와 동년 지하 핵 실험 당시의 국제 정세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는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가 처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는 일본 동경대학 교수인 가야마 아이코의 입장에서 2009년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2호>와 제2차 지하 핵 실험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북미간의 대결국면 등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더욱이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서 주인공은 북한의 영웅 혹은 모범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 아니라 일본인 학자이다.

이러한 독특한 시점과 인물 설정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 공화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여 누구나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사의 반동들의 추악한 정체를 똑똑히 해부해 볼 수 있는 냉철하고도 객관적인 시야와 사색의 바탕을 마련한 영화이다”⁷⁾라면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자주 그리고 정의의 위업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영화”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⁸⁾

『로동신문』에 드러나듯이 북한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 그리고 핵 문제를 자국의 학자가 아닌 일본 학자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 문제와 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에서 북한의 과학자가 아닌 일본인 과학자의 시각으로 영화를 전개하는 것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작·방영되는 모든 영화는 혁명적 수령관, 사회주의적

데 있다. 신명수, 『수자식기술발전은 명작영화창조의 중요한 담보』, 『조선예술』 4호, 문학예술출판사, 2013, 54쪽.

7) 『로동신문』, 2009년 8월 22일자.

8) 『로동신문』, 2009년 8월 22일자.

대가정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라 ‘수령-당-대중’을 일체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통해서 북한 당국의 핵 관련 정책 및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⁹⁾ 다시 말해서 동 영화를 통하여 북한이 미사일 및 핵 문제의 본질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 영화에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영화의 후속편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 문제를 소재로 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후속편을 통하여 북한 당국의 메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종자와 영화 속 핵의 의미

2.1.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종자

김정일은 1970년대 이래 문예작품을 창작하는 이론이자 원칙으로 ‘종자론’을 제시한 바 있다. 주체문예이론이 제시하는 창작방법론으로서 ‘종자론’은 북한 체제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문학 예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¹⁰⁾ 북한에서 문예 작품 창작의 원리로서 사용되는 종자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창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는 주제와 사상, 소재와 같은 형상요소들의 기초에 놓여 있으며 그것들을 규제하

9) 전영선, 『북한영화 속의 삶 이야기』, 글누림, 2005, 23~36쪽.

10) 장용철, 「북한 '종자론'의 문예론적 특성과 통치담론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89~112쪽.

는 기본요인이다. 따라서 종자의 요구를 떠나서 창작가가 형상요소들을 자의대로 그려 내게 되면 주제사상적과업이 제대로 실현될수 없으며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없다.¹¹⁾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작품 창작의 맥락을 고려할 때, 조선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역시 그 종자에 대한 이해는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와 작품 상영을 통한 북한 당국의 의도를 보다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 당국이 <광명성 1호>를 발사했을 때의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언론 보도 내용은 2009년 4월 5일 북한 당국이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때의 보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점이다.¹²⁾

2009년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들은 <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데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치하”했고¹³⁾ “<광명성 2호> 발사의 성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력과 배짱, 자주적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라고 보도한 바 있다.¹⁴⁾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관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광명성 2호> 발사에 <광명성 1호> 발사 때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11)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의 원리」, 『조선어문』 2호, 문예출판사, 2001, 13~14쪽; 한승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조선예술영화’ 분석: 조선예술영화 <들꽃소녀>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5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351~354쪽.

12)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오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5일자.

13)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5일자.

14)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19일자.

있다. 북한 당국이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은 1998년 제시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실제로 북한에서는 <광명성 2호>의 성과적 발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4월 8일 진행되었고 17일에는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등에서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군중 대회는 체제를 결속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하겠다. 북한 당국의 강성대국 건설의 정당성과 체제 결속력 강화의 의지는 <광명성 2호> 발사를 종자로 제작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와 지하 핵 실험을 종자로 제작된 <내가 본 나라> 4, 5부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의 기본 줄거리는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 영화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자의 위대성에 있다는 진리와 로동당의 선군혁명노선의 생활력에 있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광명성 2호> 발사의 불가피성과 함께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¹⁶⁾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위대성 강조와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대내외적으로 요구하면서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 고수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의도는 조선예술영화 <내가

15) 『로동신문』, 2009년 4월 9일자; 『로동신문』, 2009년 4월 20일자.

16) 『조선중앙통신』, 2009년 7월 27일자.

본 나라> 2, 3부를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여태껏 미국이나 령강들의 압력앞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마지막까지 도전하여 승리한 나라 또한 없었다. 그렇다면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선의 담력과 배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핵? 미사일? 아니면? ... (중략)

국가의 존엄과 위력은 핵무기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을 대변하는 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에 달려있다. 자주적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령사의 진리를 실천으로 지켜가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의의 신념, 담력과 배짱, 바로 여기에 선군조선의 령전련승의 비결이 있다.¹⁷⁾

위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당국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통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의 대내외적 정당성과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세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위대성을 관객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선군정치의 위력과 최고지도자의 정치력을 찬양하는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의지는 종전의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 5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 5부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대북한 적대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부 초반부에서는 2009년 4월 5일 발사된 <광명성 2호> 관련 내용을,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5부 초반부에서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동 영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17)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 대사 중 일부 인용. 『로동신문』, 2009년 8월 22일자.

것은 미사일 개발 및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 5부의 결말에서 선보인 북한 당국의 <광명성 2호> 발사 및 제2차 지하 핵 실험의 성공 장면은 동 영화의 ‘종자’로서,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2.2.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속 핵의 의미

북한에서 역사적 사건과 문학예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 발간되고 있는 <총서>시리즈의 경우 무엇보다도 역사를 소설로 재구성한 점에서 북한의 역사와, 역사를 보는 북한 당국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¹⁸⁾ 지난 10년 간 북한에서 발표된 소설 중 단연 최고로 북한 당국이 평가하는 불멸의력사총서 <영생>은 1993년 12월부터 김 일성이 사망할 때까지의 대내외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¹⁹⁾

당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경제문제와 식량난을, 대외적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북한에서 최고로 칭송받는 소설<영생>은 당시 대내외적으로 불거진 정치·경제·사회적인 정황을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했지만, 최고지도자의 위대성,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²⁰⁾

결국 북한 당국은 역사적인 사건을 문학예술에 적용하여 문학예술을 접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사상교양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문학예술부문 일군에 대해서도 사상교양사업 활동을 벌이

18) 김한식, 「소설과 기억의 정치학: <불멸의 역사 총서> 영생에 대하여」, 『비평문학』 제3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149쪽.

19) 『로동신문』, 2002년 5월 23일.

20) 최언경, 「수령영생기원의 숭엄한 서사시적 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영생’에 대하여」, 『조선문학』 1호, 1998, 50쪽.

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¹⁾ 이는 북한에서 문학예술이 당원 및 근로인민들을 선동하고, 체제를 선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²²⁾

영화는 우리당의 힘있는 직관적인 선전선동수단입니다. 영화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줄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오랜 기간의 역사적 사실들과 사건들을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소설이나 신문보다도 낮고 무대의 제한을 받는 연극보다 우월합니다. 영화가 여러 가지 예술형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힘있는 대중교양수단이라는데 대하여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²³⁾

위의 김일성의 연설에 나타나듯이 북한에서의 영화는 사람들을 사상정서적 교양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도구이다. 특히 2009년 북한 당국이 추진한 ‘150일 전투’에 대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된 대중동원정책이고 생산력을 향상시켜 강성대국건설을 실현시키자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²⁴⁾ 있는 와중에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가 속도전을²⁵⁾

21) 북한은 “사상교양사업에서의 기본은 예술인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라면서 예술인들, 특히 영화예술부문의 예술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 『김정일 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98~302쪽.

22) 문예출판사 편, 『조선영화년감』 1991, 문예출판사, 1992, 13쪽.

23)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9쪽.

24) <내가 본 나라> 2,3부가 개봉된 이후 북한에서는 2009년 7월 30일 북한에서는 ‘선군시대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들의 열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영화부문 창작자, 예술인,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최익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참가하였고 보고는 리상태 국가영화위원회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하였다. 본 열기 모임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예

실현한 것은 사회 전 구성원들에 모범이 될 사례이다.²⁶⁾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 및 4, 5부에서 위성이 로켓과 분리되는 장면, 지하 핵실험 장면 등에 컴퓨터특수효과(CG)를 사용하여 연출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은 북한영화에서 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²⁷⁾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결말 부분을 화려한 컴퓨터 특수효과로 각색하여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 실험을 관객에게 선을 보인 목적은 북한 당국의 과학기술력과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본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동인이다. 즉 북한은 군사에서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김정일의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의도는 결국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및 신격화를

술영화들을 훌륭히 창작완성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칠 것을 주문하였다. 『로동신문』, 2009년 8월 1일자.

- 25) “속도전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사색의 집중과 높은 창작에 모든 사색과 정열, 온갖 지혜와 재능을 쏟아붓게 함으로써 비상히 빠른 창작속도와 함께 작품의 높은 질을 보장하게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 177쪽.
- 26) “영화는 올해 4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한두해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몇 달전의 사건을, 그것도 세상을 들쭉하게 한 중대한 사변을 그 여운이 가라 앉기도 전에 예술영화화폭으로 재현한 그자체가 벌써 영화계의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영화는 <광명성 2호>의 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세계사적 변의 진상을 산 화폭으로 보고싶었던 인민의 요구에 만족을 주고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에로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군속도에 거세찬 박차를 가해주었다. 두편의 작품과 맞먹는 영화의 촬영을 단 27일동안에 해제긴 <내가 본 나라> 창조집단의 일본새는 만사람을 놀래우고 있다.” 『로동신문』, 2009년 8월 22일자.
- 27) 신명수, 앞의 책, 54쪽.

통해 작금의 정치체제를 공고화 하려는데 있다. 경제문제와 식량난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전이된 북한 사회에서 “선군세상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체제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등극했지만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가시적인 성과물, 즉 업적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선전이 될 만한 결과물을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성공이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최고지도자의 성과물인 핵과 미사일을 결부시켜 대내외적으로 선전하였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선전활동은 최고지도자에 대항할만한 담론이 형성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군력강화를 제일생명으로 틀어쥐고 불패의 혁명무력에 의거할 때에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 수 있으며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해” 나갈 수 있다는 문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선군담론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담론이기도 하다.²⁹⁾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상을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기 위해 문학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소재를 가지고 소설, 영화, 연극, 무용같은 예술작품들을 잘 만들면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³⁰⁾는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 등과 같은 소재는

28)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3일자.

29) 김창철, 「사람들을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만드는 것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8, 7쪽.

30) 김일성, 『사회주의문학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181쪽.

김정일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문학예술은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콘텍스트와 함의

3.1. 타도 제국주의 동맹 담론의 재생산

북한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반일이다. 이는 북한이 일본에 대해 “미제의 대아시아지배전략 실현을 위한 침략과 전쟁의 출격기지, 중계기지, 보급기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한 대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³¹⁾ 예컨대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자 일본의 대북제재는 강화되었다. 이에 북한은 “일본의 최근 벌리고있는 미사일발사 소동과 지하핵시설의혹소동은 미제의 대조선압살전략에 편승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극단적인 산물”이라면서 비난한 바 있다.³²⁾

북한의 일본 정부에 대한 인식은 1999년 8월 10일 북한이 발표한 ‘조일관계의 현 사태와 관련한 세 가지 원칙적 입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³³⁾ 북한 당국이 일본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작금의 정치체제 정당성 확보 및

31)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9 -세계혁명의 새로운 길 개척』,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68~272쪽.

32) 『로동신문』, 1999년 1월 31일자.

33) 일본에 대한 북한 정부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대조선압살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의 모든 죄행에 대하여 성근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이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구실을 찾으면서 끝끝내 힘의 대결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조선중앙통신』, 1999년 8월 10일자.

체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는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³⁴⁾

소박성이 가장 결핍된 나라(일본)가 가슴아프게도 제 조국입니다. 그 게 없어 제 조국이 세계의 비난을 받는거지요. 소박성은 인간의 미덕입니다. 미덕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아름다워지는거지요. 그 아름다움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품이 없어 그 품을 따르고싶어 그 품을 칭송했을뿐입니다. 제 부모도 그렇게 되어달라고요. 백여년전 총칼을 가지고 덤벼든 우리 일본앞에 <을사5조약>을 강요당했던 조선민족이 어떻게 되어 오늘날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 온 세계를 한손에 거머쥐고 당신들이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미국과 맞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작고도 큰 나라로 만들었는지 당신들은 모르는가요?³⁵⁾

위 영화 속 대사에 나타나듯이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서 일본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 당국이 일본 국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문제를 일본 동경대학의 교수인 가야마 아이꼬의 시각으로 영화를 전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일본인의 시각에서 영화를 전개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당국은 제 3자의 시각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과 같은 행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서는 한반도 주

34)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출판사, 2005, 160쪽.

35)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3부 대사 중 일부 인용. 주영숙, 「인문의 사상감정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준 개성적인 대사형상」, 『조선예술』 12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58쪽.

변 국가들 중에서 일본인의 시각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본질을 다루고 있다. 북한 당국이 자국의 영웅이 아닌 일본인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인식은 한반도 주변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즉 북한 당국은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자가 있었기에 핵을 보유할 수 있었으며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담론을 생산하여 대내외적으로 체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과 북한, 미국 등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본 영화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정치력에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은 대외 공격용이 아닌 자위용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³⁶⁾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교를 더욱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³⁷⁾

36) 지금까지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군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먼저 끌어들었고 남조선의 1,000여 개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국현·윤금철, 『미룰수 없는 남조선강점 미군철수』, 평양출판사, 2004, 204~205쪽.

37) 북한은 외무성 성명 발표를 통하여 더욱 커지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을 지적하면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해 공격용이 아닌 자위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써³⁸⁾ 존재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한반도에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는 문구에 드러나듯이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³⁹⁾ 결국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건설을 기본 골자로 한 타도제국주의동맹⁴⁰⁾의 반제자주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전략과 전술의 합리화 그리고 김정일이 제시한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2. 콘텍스트의 이데올로기화

북한 당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원동력을 김정일이 제시한 선군사상에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여명을 불러온”⁴¹⁾ 선군사상이 결국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제국주의로부터의

서 자위를 위한 정책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5년 2월 10일자.

38) 북한은 보도를 통하여 “핵실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9일자.

39) 『로동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40)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타. ㄷ》가 높이 추켜든 기발에는 반제자주정신이 맥박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 반제 계급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선군의 요구대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며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제국주의반동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2010년 10월 17일자.

군사적 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는 논리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⁴²⁾ 이에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는 그 어떤 강적도 무찌를 수 있는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는데 있어서 필수”인 것이다.⁴³⁾

혁명적군인정신에 관한 장군님의 사상이야말로 우리 혁명을 선군이라는 필승불패의 궤도에 올려세운 위대한 사상이며 력사상 최악의 시련 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렬명을 불러올수 있게 한 승리의 기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오늘 선군혁명시대의 위대한 시대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여 혁명대오를 정예화하고 그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기려는 것이 바로 장군님의 확고 부동한 결심이며 의지이다.⁴⁴⁾

위 문구에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선군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문학예술에도 이러한 기조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 3부를 “선군이자 자주이고 자주이자 진리이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의 철리를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있고 자주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진보적 인류의 지향이고 념원”⁴⁵⁾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영화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본 영화를 통해 북한 당국이 선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최고지도자의 위대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려는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조선에

41) 최옥선,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천리마』 3호, 천리마사, 2007, 24쪽.

42) 김봉덕, 「선군정치는 우리 식의 새롭고 독특한 정치방식」,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5권 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9, 98쪽.

43) 『로동신문』, 2010년 8월 26일자.

44) 천리마사 편,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나라에 나래치도록 해주시여」, 『천리마』 3호, 천리마사, 2007, 25쪽.

45) 『로동신문』, 2009년 8월 27일자.

술영화 <내가 본 나라>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걸쳐 작금의 북한 정치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북한이 전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영화를 통해 선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위적 군사력이 없이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불거진 경제문제와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개혁·개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작금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군사에서의 강국화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군사강국이 필수라는 것과 강력한 공격과 방어의 현대적 무장장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 5부에서 북한은 2009년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⁴⁹⁾과 동년 5월 8일 발표한 ‘조선중앙통신 외무성 대답’⁵⁰⁾의

46)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기사장 송명호는 로동신문 인터뷰에서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2,3부에서 보여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장면을 통하여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라는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선군정치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조국을 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신 장군님이시야말로 자주정치의 거장이시고 강철의 령장이시라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확신하였다”고 하였다. 『로동신문』, 2009년 8월 27일자.

47) 철학연구소 편,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 사회과학출판사, 2000, 41쪽.

48) 철학연구소 편, 위의 책, 47쪽.

49) “적대세력은 6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던 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질식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우리는 이미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데 대하여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즉시 사죄하

내용을 언급하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영화 <내가 본 나라>에서 제국주의라는 적을 재생산하고 최고지도자의 위대성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매년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인민생활경제의 향상”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당국은 경제문제와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선군정치를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통해 내부적으로 불거진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국주의라는 적으로 환원시켜 체제 결속력을 높이고자 도모하고 있다.

3.3.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함의

북한에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항구적 과업으로 논의된다.⁵¹⁾ 북한은 “강한 자위력만이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군사를 첫째로, 국방공업을 선차”⁵²⁾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 않는 경우 우리는 첫째로,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경수로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29일자.

- 50) “미국에서 오바마행정부가 출현한후 100일간의 정책동향을 지켜본데 의하면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없애려는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본질이다. 우리가 최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것은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것이외로 결코 그 누구의 주의를 끌어 대화나 해보자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밝힌대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5월 8일자.

51) 철학연구소 편, 앞의 책, 42쪽.

52) 철학연구소 편, 위의 책, 42~43쪽.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이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은 북한을 군사강국, 핵 보유국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⁵³⁾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⁵⁴⁾

위 문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이 이처럼 선군의 위력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일 중심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군이라는 물리적 집단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이다.⁵⁵⁾ 즉 1990년 전후로 하여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가 붕괴된 상황 하에서 북한 당국은 대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어떤 집단보다도 집단주의 정신, 즉 조직성

53) 북한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건설에 대해서 “고난의 행군은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에 의해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로를 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뿌리는 선군정치인 것이다.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평양출판사, 2004, 172~174쪽.

54) 『조선중앙통신』, 2009년 5월 25일자.

55)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은 혁명적 군인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 사생결단의 투쟁정신으로, 그 어떤 대적도 맞받아 물리치고 그 어떤 시련도 용감히 뚫고 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정신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무기로서 위대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한다.” 전덕성, 앞의 책, 92~93쪽.

및 단결력이 강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⁵⁶⁾ 북한에서 인민군대는 내부적으로 북한의 경제 문제와 식량문제 해결의 선봉대 및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일종의 영웅이다.⁵⁷⁾ 북한이 이처럼 선군의 기치 하에 군사강국건설에 의미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김정일의 정치력으로 귀결되면서 지도자의 위대성,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신화화하는데 있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기 인민을 믿고 끝까지 뚫고 나가는 불굴의 사상의지가 바로 이 위대한 힘을 낳았다. 이 위대한 힘의 원천은 바로 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담력과 배짱이다.”⁵⁸⁾라는 영화 속 주인공 아이꼬의 대사에 나타나듯이 북한은 영화를 통해서도 김정일이 제시하고 완성한 선군정치의 위대성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대사는 북한 사회에서 체제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선군정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선군정치의 확신을 심어 주고 이미 과업을 달성한 군사강국을 기반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56) 『로동신문』, 2008년 9월 21일자.

57) “우리 인민군대는 선군시대의 시대적본보기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있다. 최근 년간에 우리 조국땅우에 일떠선 대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당의 구상을 받들고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물불을 가림이 없이 투쟁한 인민군장병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영웅적위훈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정예화된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기에 부강조국의 미래가 더욱 앞당겨지고있으며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로동신문』, 2005년 4월 23일자.

58) 조선예술영화 <내가본나라> 4,5부의 마지막 대사.

4. 결론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통해 정치사상강국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의 성공으로 군사에서의 강국을 이루었으며 김정일의 선군정치, 선군사상이 있었기에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경제에서의 강국을 달성해야 할 당면 과제가 있으며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강성대국건설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⁵⁹⁾ 이에 북한 당국은 2012년으로 설정한 강성대국 건설 달성 중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2009년 전국적으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같은 대중동원운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까지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모든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남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이다. 북한과 동북아 주변국의 관계개선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문제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⁶⁰⁾ 북한 당국의 이러한 논리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을 자위를 위한 방어의 수단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는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와 동년 지하 핵 실험, 군사전략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당국은 선군정치를 기치로 국방력

59) 『로동신문』, 2010년 9월 26일자.

60)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23일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전략은 로동당의 정책을 통해서도 엿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를 직접적으로 다룬 북한의 첫 번째 예술영화인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동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핵을 보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의 영화예술은 사람들을 교양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상품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에 나타나듯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본 영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 5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이듯, 북한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요인을 선군의 결과이며 초대국의 위협과 공갈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과 배짱도 강한 군사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설명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시리즈를 통하여 관객들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최고지도자가 제시한 선군정치를 정당화하고,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등의 성공적인 결과는 최고지도자의 정치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1990년대 이후 경제문제와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고지도자를 조금만 더 믿고 따르면 강성대국건설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대중적 눈높이로 낮춰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 핵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체제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에게 있어서 핵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 하에서 작금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식 사이버전략과 대북 사이버전략의 방향」, 『통일전략』 제4권 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 김봉덕, 「선군정치는 우리 식의 새롭고 독특한 정치방식」,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제55권 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9.
-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출판사, 2005.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3,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사회주의문학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
-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의 원리」, 『조선어문』 2호, 문예출판사, 2001.
- 김정일, 『김정일 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창철, 「사람들을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만드는 것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8.
- 김한식, 「소설과 기억의 정치학: <불멸의 역사 총서> 영생에 대하여」, 『비평문학』 제3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 문예출판사 편, 『조선영화년감』 1991, 문예출판사, 1992.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신명수, 「수자식기술발전은 명작영화창조의 중요한 담보」, 『조선예술』 4호, 문학예술출판사, 2013.
- 엄국현·윤금철, 『미룰수 없는 남조선강점 미군철수』, 평양출판사, 2004.
- 장용철, 「북한 '종자론'의 문예론적 특성과 통치담론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평양출판사, 2004.
- 전영선, 『북한영화 속의 삶 이야기』, 글누림, 2005.
- 전영선, 「북한 영화의 유형과 학문분류 체계」, 『통일인문학』 제48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9 -세계 혁명의 새로운 길 개척』,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주영숙, 「인문의 사상감정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준 개성적인 대사형상」, 『조선예술』 12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천리마사 편,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나라에 나래치도록 해주시여」, 『천리마』 3호, 천리마사, 2007.

철학연구소 편,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 사회과학출판사, 2000.

최연경, 「수령영생기원의 숭엄한 서사시적 화폭: 충서 <불멸의 력사> 중 ‘영생’에 대하여」, 『조선문학』 1호, 문학예술출판사, 1998.

최옥선,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천리마』 3호, 천리마사, 2007.

한송남, 『연출가의 영화적 재구성』, 문학예술출판사, 2008.

한승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조선예술영화’ 분석: 조선예술영화 <들꽃소녀>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5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한승호, 「북한영화 <평양 날파람> 연구」, 『정신문화연구』 33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한승호, 「북한 과학기술현대화(CNC)의 의미에 관한 연구」, 『북한과학기술연구』 8집,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10

한승호·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애국주의’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국방정책연구』 29권 2호, 한국국방연구원, 2013.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논문투고일 : 2015. 12. 28. / 심사완료일자 : 2016. 03. 07. / 게재확정일자 : 2016. 03. 14.

A Study on "Nuclear" in North Korean Film

Han, Seung Ho* · Ko, Kyung Mi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nuclear weapon and the purpose intended by North Korea, through Joseon Arts Film <The country I saw> dealing directly with globally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Kwangmyongsong-2> launched by North Korea in 2009, the second underground nuclear test, and subsequently surfaced confronting situ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 asserts that movie is the most effective mean for propaganda intentions, analyzing Joseon Arts Film <The country I saw> continuously produced quite recently can be an effective way to underst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olicy and its purpose.

Accordingly, this research conducted analysis by mostly focusing on contents to be delivered to audience through Joseon Arts Film <The country I saw> that shows a will to emphasize missile and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from objective point of view, and what significance nuclear weapon carries for North Korea.

Key Words Kim Jung Il, North Korean Film,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orth Korean Missile, The Country I Saw, Kwangmyong-song

*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 Jeju National University